

“가격폭락에 도둑도 안 가져간다” 눈물의 무안 양파

농산물값 ‘뚝’ 농민 시름

본격 출하기를 맞은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 그동안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경영난이 가속되면서, 총체적인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은 마늘·양파 등 주요 양념류를 비롯해 무·배추 등 채소류까지 예년보다 도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이 한숨짓고 있다.

서울 가락도매시장 상품기준 주요 채소류 가격 동향을 보면 마늘의 경우 지난 2일자 기준 kg당 가격은 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795원과 비교할 때 무려 39%가 떨어졌다.

양파 가격은 지난해 이맘 때 가격에 비해 반토막 났다. 양파의 kg당 가격은 64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58원에 비해 무려 61%나 폭락했다.

무·배추와 양배추, 당근, 부추 등 엽근채류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무의 18kg 한상자 가격은 7382원으로 지난해 이맘 때 1만5008원에 비해 51%가 떨어졌다. 배추는 59%, 양배추는 64%, 당근은 12%, 상추는 4%, 부추는 27%씩 하락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오른 품목이 드물 정도다.

조미채소류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파는 39%, 감자는 26%, 견고추는 19% 하락했다.

쌀값 역시 재고 과잉과 계절적 영향으로

■ 채소 값 폭락 <도매시장 지난해 7월 기준>

	양파(1kg)	-61%
	마늘(1kg)	-39%
	무(18kg 한상자)	-51%
	배추(18kg 한상자)	-59%

역마진이 발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25일 현재 20kg들이 한포대당 4만2685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4만3829원 보다 2.6% 낮은 상태로, 수확기인 가을까지 이 같은 가격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장유철(47)씨는 “올해 200t을 생산했는데 팔린 것은 10t뿐”이라며 “도로에 방치하다시피 쌓아 놓고 있지만 워낙 열감이어서 도둑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농산물 가격 파동이 지속되면서 산지유통시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지역 농민들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한·중 FTA 체결이 현실화되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농가를 보호하고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APC를 구제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장에 조영표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재선인 조영표(53·새정치·남구 1·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조 의원은 8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 전체 22표 중 12표를 얻어 10표를 획득한 재선인 문상필(48·새정치·북구 3)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장 겸 경선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발전하는 의회, 힘있는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2년 임기 동안 열심히 해 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구에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로 시의회의장이 배출됐다”며 “윤장현 시장이 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시의회 고유 권한인 감시와 견제도 열심히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조 의원은 광주교과와 광주대, 조선대 대학원 출신으로 3선 남구의원, 광주 하계U대회 조직위원, 6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조선인 문태환(58·광산구), 김동찬(49·북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가족 기다리는 광주의 ‘노란 물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8일 오전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기다리며 광주지방방법 앞 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증축·운항·사고 대응... 총체적 부실

감사원 ‘세월호 참사’ 감사 중간 발표서 드러난 인제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에서부터 초동 대응,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까지 총체적 부실대응이 부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7면>

감사원은 8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감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 발표가 최종 감사결과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5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5월 1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3일간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도입·선박검사 출항 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실태 ▲사고발생 전후 해상관제 및 초동 대응·구조활동의 적정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관련 관리·감독실태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세월호 도입부터 증축·안전점검·운항관리 등 여객선 안전관리가 부실했고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고박불량 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것이 침몰의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의 여객 정원과 재화(載貨) 중량톤수 등을 번조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증선(增船) 인가를 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검사 등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해 놓고도 경사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승인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 소속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전, 청해진해운 소속의 오하나마나호에 무상으로 탑승한 뒤 식대·주류·관광 등 향유를 받았으며, 운항관리자인 한국해운조합은 과적·고박상태 확인 등 ‘출항 전 안전점

검’을 형식적으로 한 뒤 세월호를 출항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VTS는 세월호가 급변한 후 표류하는 것을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께부터 포착할 수 있었음에도 16분 후인 9시6분에야 목포해경에서 통보를 받은 뒤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는 등 사고대응에 미흡했다고 지적됐다.

또 헬기·함정 등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 전 선장과의 직접 교신에 소홀해 승객의 선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고 해경과 수방방제정 등 구조세력간 유기적인 연계가 없어 혼선이 야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안전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해수부·한국선급 등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고 대응 조치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해경·안행부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鄭총리 “국가대개조 범국민위 구성”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세월호 참사 후 ‘국가개조’와 관련,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성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

는 말씀’을 통해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개혁·안전혁신·부패척결·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부정정탁금지법 등의 조속한 통과도 국회에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NEW
수분감신기능성
사용여아용안면크림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령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위진 한울 율령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에요.

*비교 실험대상: 진후 갈색 솔잎 추출물 농도 2배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2.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3. 피부가 나빠져 한결 아려 보이는 느낌이 없다	99%	4. 피부가 맑아진 느낌이다	99%
5. 단박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느껴진다	98%		

*니가면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아미코스, (주)아미코스(세라믹비디, 아미코스비디) (www.amicos.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2층 (02-3454-4545) > 고객상담실 (060-023-0254)